

# 보도자료

수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발신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담당	난다(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활동가)		
제목	<'청소년 대통령'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 "내가 만약 최초의 청소년 대통령이 된다면?" 설문조사 결과발표		
발송일	2016년 11월 19일(토)	분량	총 8매

1. 귀 언론사에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2016년 11월 19일 토요일 10시 30분 광화문 광장에서 **1,086명의 10대 청소년들**이 바라는 사회와 변화의 요구를 담은 **‘청소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3.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에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넘어, 각종 비리와 차별들로 얼룩진 나라를 변화시킬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내가 최초의 청소년 대통령이 된다면?>** 이라는 설문조사로 모았습니다. [붙임 2.]
4.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1,086명의 청소년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와 동시에 청소년들이 만들고 싶은 세상, 그리고 청소년 참정권이 보장된 모두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향한 다양한 요구들이 모인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그 열망을 담은 **‘청소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붙임 3]
5. 새로운 시대를 향한 청소년들의 목소리들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붙임 1. 기자회견 안내
- 붙임 2. <내가 최초의 청소년 대통령이 된다면?> 설문조사 결과
- 붙임 3. 청소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

[붙임 1. 기자회견 안내]

## <‘청소년 대통령’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

“ 내가 만약 최초의 청소년 대통령이 된다면?” 설문조사 결과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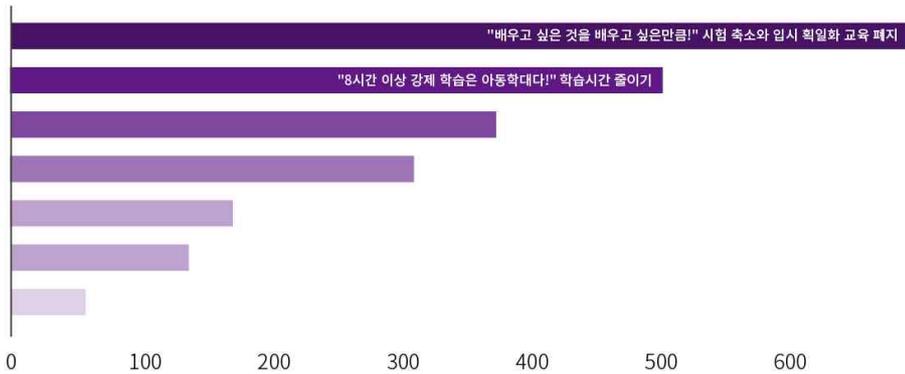
**일 시** : 2016년 11월 19일(토) 오전 10시 30분  
**장 소** : 광화문 광장  
**주 최** :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난다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활동가)
  
- 발언 : 1. 설문조사 취지와 경과 (사회자)  
2. 발언1(입시획일화교육 폐지) : 청소년대통령 1 (만 16세)  
3. 발언2(학습시간 줄이기) : 청소년대통령 2 (만 12세)  
4. 발언3(기본소득 보장) : 청소년대통령 3 (만 18세)  
5. 발언4(세월호 진상규명) : 청소년대통령 4 (만 16세)  
6. 발언5 : 비청소년 지지 발언 및 설문조사 주관식 내용 발표
  
- '청소년 대통령'들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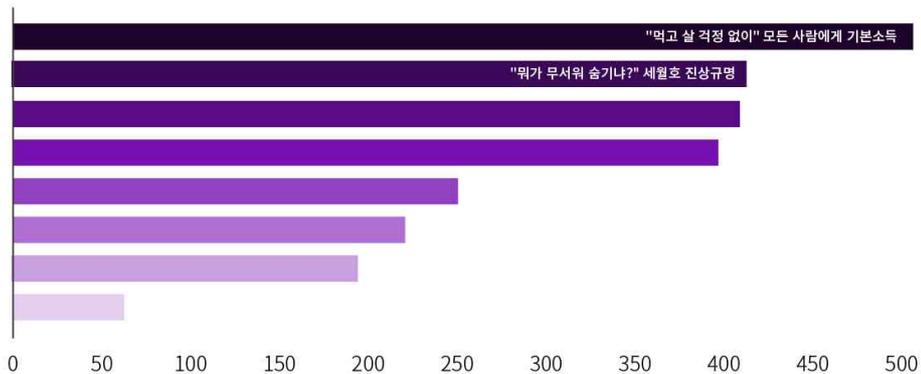
## [붙임 2.설문조사 결과]

[교육-청소년 분야] 다음 중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2개 선택 가능)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고 싶은만큼!" 시험 축소와 입시 획일화 교육 폐지	685	63.1%
"8시간 이상 강제 학습은 아동학대다!" 학습시간 줄이기	495	45.6%
"놀이 권리, 쉼 권리를 보장하라!" 휴식 및 놀이공간, 동아리방 등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 확대	370	34.1%
"더 말하기도 지겹다!" 체벌 금지, 두발 자유, 휴대폰 압수 금지	309	28.5%
"중2병, 급식충..." 청소년 혐오와 비하, 이제 그만	169	15.6%
"왜 청소년에게만 금지?" 온라인 게임 섯다운제 등 청소년을 배제하는 문화정책 폐지	135	12.4%
기타	57	5.2%

[사회 분야] 다음 중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2개 선택 가능)



"먹고 살 걱정 없이" 모든 사람에게 기본소득	501	46.1%
"뭐가 무서워 숨기냐?" 세월호 진상규명	413	38%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위안부 협상 무효	405	37.3%
"사람은 일회용품이 아니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	393	36.2%
"사람 위에 사람 없다" 차별금지법 제정	248	22.8%
"사람을 죽여놓고 나몰라라?" 고 백남기 씨 죽음에 대한 책임자 처벌	221	20.3%
"지진보다 더 무서운 핵발전소" 지금 바로 탈핵	194	17.9%
기타	64	5.9%

[교육·청소년 분야] 다음 중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2개 선택 가능)

	응답자 수	%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고 싶은만큼!" 시험 축소와 입시 획일화 교육 폐지	685	63.1%
"8시간 이상 강제 학습은 아동학대다!" 학습시간 줄이기	495	45.6%
"놀 권리, 쉼 권리를 보장하라!" 휴식 및 놀이공간, 동아리방 등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 확대	370	34.1%
"더 말하기도 지겹다!" 체벌 금지, 두발 자유, 휴대폰 압수 금지	309	28.5%
"중2병, 급식충..." 청소년 혐오와 비하, 이제 그만	169	15.6%
"왜 청소년에게만 금지?" 온라인 게임 섯다운제 등 청소년을 배제하는 문화정책 폐지	135	12.4%
기타	57	5.2%

[사회 분야] 다음 중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2개 선택 가능)

	응답자 수	%
"먹고 살 걱정 없이" 모든 사람에게 기본소득	501	46.1%
"뭔가 무서워 숨기냐?" 세월호 진상규명	413	38%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위안부 협상 무효	405	37.3%
"사람은 일회용품이 아니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	393	36.2%
"사람 위에 사람 없다" 차별금지법 제정	248	22.8%
"사람을 죽여놓고 나몰라라?" 고 백남기 씨 죽음에 대한 책임자 처벌	221	20.3%
"지진보다 더 무서운 핵발전소" 지금 바로 탈핵	194	17.9%
기타	64	5.9%

## 청소년에게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다면 무엇부터 바뀔까?

### - 하나! 뭐니뭐니해도 청소년의 삶부터 바뀐다!

청소년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치가 시작되면 그동안 어른들 마음대로 규정하고 배제한 청소년의 삶에 변화가 온다~

“~~ 은 사라지고”
미친 살인입시
성적과 스펙 등 성과중심의 경쟁교육
청소년 배제적인 법 집행이나 청소년을 고려하지 않는 입시 및 교육제도
시험
학원
학습시간
비현실적인 공부량
두발제한, 체벌 같은 비인권적 일들과, 선택지 없는 학교수업을 수업일수/시수로 강제하는 것
의무교육
학교에서 정치적 행동 금지 조항
체벌, 휴대폰 압수 등 각종 억압
학벌주의

“~~이 온다”
청소년이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표현하는 능력
청소년들의 인권이 존중될 것이다.
청소년의 경제적 권리가 보장될 것이다.
놀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질 것이다.

### - 둘! 어린것들이 뭘 알아? 이런 말부터 사라지고 청소년에 대한 인식이 바뀐다!

청소년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시민이다!

청소년에 대한 차별적 의식이 사라질 것이다.
청소년은 무력한 존재라는 생각,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어른들이 바뀔 것이다.
청소년을 소유물로 생각하는 것들이 사라질 것이다.
청소년보호법이 폐지되고 청소년인권법이 긍정적으로 검토될 것이다.
청소년의 정치 세력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나이주의부터 바뀔 것이다
청소년들에게 가해지는 혐오와 차별, 부당한 것들이 사라질 것이다.

청소년을 대하는 어른들의 자세가 바뀔 것이다.
정치인들도 청소년들은 더 이상 애들로만 보지 않을 것이다
사회를 모르게 청소년의 눈과 귀를 막는 것이 없어질 것이다.

**- 셋! 이게 나라냐?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당장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청소년의 정치참여로 바꿀 수 있다!

이번과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
박근혜대통령
정부/정권
부정부패
권력과 돈 중심의 사회
새누리당에서 대통령이 배출되거나 의석수가 과반수 이상이될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투표율
정치
가짜 민주주의
국회의원
후보들의 평균연령
정치인들의 공약
정치인들 사과상자
전체적인 나라의 분위기
어른
꼰대
교육부 장관
여성부
왔다갔다하는 교육 정책
군대문화
청년정책
열정페이
최저시급
기업의 대졸자 우선채용 상황
핵발전소
굶주리는 사람이 없어질 것이다.
다양한 연령층의 의견이 보다 더 잘 반영되는 사회가 될 것이다.

### [붙임 3. 청소년 대통령 담화문]

#### “우리의 민주주의를 꿈꾸기를 주저하지 맙시다” ‘청소년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국민 여러분. 저는 혼란스러운 이 시국에 청소년들이 바라는 세상과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고자 아주 특별한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소년 대통령’. 제 나이로는 대통령 당선 은커녕 후보 등록조차 할 수 없다는 거, 네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뭣이 중한가요. 저기 보이는 청와대 지붕 아래 아직도 대통령 행세를 하고 계신 분도 어차피 진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 청와대에 계신 분과 저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분은 드라마 주인공의 이름밖에 못 빌리시겠지만, 저는 이 땅 청소년들의 이름을 빌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껏 시민으로 인정받지 못해왔던 우리 청소년들이 누군가에 의해 대변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대표할 수 있는 세상을 요구하기 위해, 청소년이 단지 유권자를 넘어 교육감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될 수 있는 세상을 상상하기 위해, 청소년이 인간답게 사는 세상은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사는 세상과 다르지 않음을 말하기 위해 ‘청소년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어른들은 흔히들 말해 왔습니다. 어린애들이 정치에 대해 뭘 알겠느냐고. 학교에서 암전히 공부하고 있으면 우리 어른들이 다 알아서 해줄 거라고. 그래왔던 어른들이 지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민주주의를 물려주게 돼서 미안하다고. 묻겠습니다.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지는 10여 년의 보수정권 아래서 어른들의 살림살이만, 어른들의 민주주의만 엉망이 되었을 것 같습니까? 이 헬조선에서 언제 벼랑 끝으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은 어른들만의 것입니까? 타고난 수저 색깔과 상관없이 입시와 취업에서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고 있습니까? 어떤 일터에서든 차별과 착취 없이 정당한 제 몫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나요? 우리 사회에 상식과 정의라고 할 만한 게 남아있기는 한가요? 지금의 ‘노(No) 답’ 상황은 바로 우리 청소년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껏 겪어왔고, 앞으로도 겪을 절망적 현실입니다.

며칠 전 수능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찾아온다던 더 나은 미래는 어디로 가버렸나요? 지금의 입시제도는 세상의 모든 ‘정유라들’이 부모의 금수저를 물려받는 걸 정당화하는 도구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요? 우리는 마치 영화 줄거리조차 모른 채 동원된 엑스트라가 된 기분입니다. 대학 가려면 인간이길 포기하래서 공부하는 기계러니 죽은 듯이 살았는데, 그동안 찍고 있었던 영화가 ‘내부자들’이라니요! 뭘 자꾸 바꾼다고 교육정책에 손댔 때마다 우리를 쪼는 강도는 심해져 왔습니다. 더 치열해지기도 불가능해보였던 입시가 매해 더 뼈세지는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나라 꼴도 엉망이고, 청소년들의 미래도 엉망진창입니다. 이러려고 내가 태어났나, 이러려고 내가 미성숙한 시민 취급 받으며 투표도 못한 채 살아왔나 자괴감이 들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땅 청소년들과 함께 그저 주저앉아 있지는 않으려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난다고 해도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최초의 청소년 대통령이 된다면’이라는 설문조사를 통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청소년들은 학대 수준의 가혹한 학습노동과 획일적 입시교육으로부터 해방을 꿈꾸고 있었으며, 누구에게나 존엄한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세상을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만하면 됐다던 세월호의 진실 찾기와 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잊지 않고 시대적 과제로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특 하면 기억상실증에 걸리는 드라마 주인공처럼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일들을 너무 쉽게 잊어왔던, ‘현실은 원래 그런 거야’라며 체념하고 외면했던 어른들과는 달리 말입니다. 그밖에도 학생인권 보장, 비정규직 없는 세상, 위안부 협상 무효, 차별 없는 세상과 같은 강렬한 열망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요구들이야말로 바로 이 땅에 민주주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저는 ‘청소년 대통령’으로서,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청소년들이 제시해준 나침반을 따라 청소년들이 바라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힘쓰겠노라 약속드립니다.

가짜 대통령도 물러나고, 가짜 민주주의도 물러나야 합니다. 청소년들은 이런 나라를 물려줘서 미안하다는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바꿔주길 무기력하게 기다리기보다 우리가 직접 바꾸겠습니다. 우리는 ‘청소년들이 참 기특하네’라는 위계적인 평가에도 간히고 싶지 않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청소년들도 평등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사회는 청소년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보장될 때 더 성큼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우리에게 선거권, 피선거권이 보장되었다면 나라꼴이 이 모양은 아니었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참정권이 보장된다면 온 나라가, 청소년을 무시하는 사회가, 무자비한 교육정책이 바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만19세 미만의 참정권을 압살하고 민주주의로부터 청소년을 멀찌감치 떼어놓은 지금 사회를 바꾸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비청소년인 국민 여러분도 청소년에게 참정권이 보장되는 세상을 상상하는 즐거움을 함께 누리시고 지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청소년들에게 ‘온 우주의 기운을 모아’ 전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미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움직이는 만큼 저는 미래로부터 현재로 성큼 건너와, 여러분의 진짜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를 꿈꾸기를 주저하지 맙시다.

2016년 11월 19일

광화문 광장에서 ‘청소년 대통령’